

직장인, 자신의 브랜드 가치는?

男 4,422만원

직장인들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평균 3천994만원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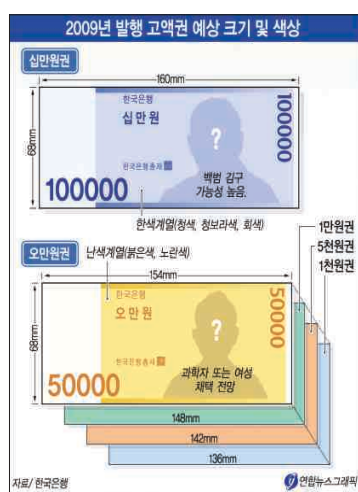
女 3,641만원

현재 회사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는 '과장급'...

10만원권 초상인물 김구 유력 5만원권 장영실·신사임당 거론

크기·색상 윤곽 드러내

2009년 상반기 발행예정인 10만원, 5만원 지폐의 인물초상과 보조소재 디자인 등을 확정하는 문제가 큰 숙제로 남아 있지만 고액권의 크기와 색상은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한 색상이, 10만원권은 차가운 색상이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5만원권은 붉은색 또는 노란색이 기초색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 승객을 위하여

아시아나항공은 4.5일 이틀간 김포공항 2층 아시아나항공 카운터에 포토존을 마련하고 어린이 고객들이 만화 캐릭터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함은 물론 페이스페인팅과 매직쇼 등을 선사한다.

궁핍한 가계 저축여력 없다

지난해 개인저축률 3.5%... 1995년 이후 해마다 급락

총저축률은 31.6%... 수출로 번 돈 대부분 기업 차지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규모가 대만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개인저축률은 최근 몇 년 사이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락하면서 독일이나 대만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Table showing personal savings rates for various countries from 1995 to 2006. Korea's rate is notably low at 3.5% in 2006.

일본은 같은 기간 11.1%에서 3.0%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급하지는 않다.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 하락폭이 훨씬 큰 셈이다.

현대건설 워크아웃 졸업 1년 올해도 새 주인 못찾나

현대건설의 새 주인 찾기가 어렵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 후 1년째 담보상태에 빠져 있다.

달 말까지 입장조율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은행의 경영진 교체와 판매 문제 등 현안을 처리하느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광주 등 전국 순회 '공익광고 전시회'

4일부터 상무시민공원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정순준)는 4일부터 광주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 순회 '공익광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의 공익광고 60점 등이 소개된다. 순회 전시는 광주 상무시민공원(4~6일)을 비롯, ▲대전 시립미술관(11~13일) ▲울산 대공원(18~20일) ▲부산 벡스코(25~27일) 등이다.

"한국 가계 자산의 77%가 부동산 주택보유 지나쳐 국가 재앙 올수도"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밝혀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이 한국 가계 자산의 기형적인 부동산 집중 현상이 여전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자산구조는 기형적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주택에 집착하는 현상은 수익성 부동산이 중요 투자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국제 자본시장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 졸업후 취업까지 평균 1년 걸린다

15~29세 청년층이 졸업 후 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19세 청소년층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60분이 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가족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54% "어버이 날 공휴일로" 5월 기념일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5월 기념일은 '어버이날'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어버이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쇠고기 광우병 위험 문서 은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국제기구에 통보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 새출발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7일부터 코레일(KORAIL)로 사명을 바꾸고 새look 태어난다. 이철 코레일 사장은 2일 과천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공사라는 이름은 법인명으로부터 앞으로 모든 대내외 명칭을 코레일로 쓰기로 했다"면서 "이로써 철도공사는 코레일 그룹이 되고 자회사는 계열사로 불리게 된다"고 밝혔다.